

혁신과 발전의 새 전기를 맞은 도서관계



글 _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9년간이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끝에, 1999년 8월 이 대회를 2006년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도서관계는 환호했었다. 그 후 7년간이나 이 세계 도서관인과 지식인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일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우리는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며 이 대회를 치러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미국의 North Suburban Library System의 관장이며 저명한 미국의 도서관계 지도자인 Sarah Ann Long 여사는 미국의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 대회를 이렇게 극찬하였다.

“올해 서울대회의 개막식은 기다린 보람만큼 훌륭했다.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하늘거리는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서관은 시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역동적 엔진임을 역설하며 평생교육과 도서관의 혁신적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기조연설에서 세계의 도서관들은 서로 다른 종교와 빈부의 격차를 넘어 동서양 간에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인상 깊은 연설을 하였다. …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도서관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던 나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서울은 지난 15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놀라우리만큼 거대하고 효과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 한국 사람들이 IFLA 개막식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닌 듯싶다.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갈망하고 창의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를 계속해서 이어갈 재능과 야망,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장황하게 그녀의 신문 기고문을 인용한 것 같지

만 끝으로 그녀의 말을 보탠다면 “역대 대회 중 서울 대회가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는 논평이었다.

우리는 코엑스라는 단연 뛰어난 회의 장소, 조직위원회의 주도면밀한 준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지원,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친절함과 정성까지 곁들여 이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나라의 위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도서관계는 이 거국적인 세계대회를 동력으로 하여, 3년여 간 준비하고 다듬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지난 9월 8일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미경 국회 문광위원회 전 위원장의 발의로 공청회와 몇 번의 법안 조율 등 진통을 겪은 이 법률이 「도서관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행령은 현재 마련 중이고, 각의를 통과한 후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등 한국도서관사에 획을 긋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법에는 대통령 소속 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법 제12조) 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변혁의 핵이다. 우리 도서관계는 이러한 두 가지 역사적인 전진을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 발전 정책 부재와, 전반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 도서관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는 우리 협회와 모든 회원 도서관과 회원들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법의 개정 정신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면서 서두르지 않되 차근차근 발전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 출발의 정신과 자세는, 우리나라를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인들의 헌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지식강국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함에서 찾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